

'일본군 위안부' 강제연행 주장 길원옥 씨 사망...위안부 진실규명 미완성으로 남겨

✎ 박순중 객원기자 | ⓒ 승인 2025.02.17 07:38

16일 사망, 향년 97세

"吉氏, 한 번은 만주로, 다른 한 번은 친구들과 돈 벌러 매춘에 뛰어들어...피해자 아니다" 지적도

생전 증언도 "엄마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"

'일본군 위안부' 강제연행 피해사실을 호소해 온 길원옥 씨가 사망했다.

신명숙 여성가족부 장관 직무대행은 16일 길 씨가 사망했다고 밝혔다. 향년 97세.

이와 관련해 신 대행은 "길원옥 할머니는 '일본군 위안부' 피해 사실을 국내외·적으로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신 분"이라며 "또 한 분의 '일본군 위안부'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"고 말했다.



길 씨의 1928년 평북 희천에서 태어나 평양에서 자란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그런데 길 씨의 ‘일본군 위안부’ 강제연행 피해 주장 내용은 논란이 되고 있다. 길 씨의 증언 내용이 ‘일본군 위안부’ 강제연행 피해사실을 인정할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.

그의 생전 증언 내용은 이렇다.

길 씨는 증언에서 어려서 장물을 만지던 아버지가 옥에 갇히게 되자 아버지의 구명(救命)을 위해 **이웃 푸줏간 주인에게 돈을 꾸는 대가로 그 돈을 갚기 위해 만주의 모(某) 매춘 업소에서 일하게 됐다**고 한다.

매춘 업소에서 성병에 걸려 1년여만에 귀향하게 된 길 씨는 평양에 있던 어느 기생학교(권번)에서 귀동냥을 하면서 노래와 춤을 배우다가 그곳 권번에 다니던 친구들과의 모임 자리에서 **화북(華北)의 모처에 가면 일도 편하고 돈도 많이 번다는 말을 듣고 다시 한번 매춘을하기로 결심**하고 친구들과 함께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넜다.

당시를 회고하며 길 씨는 “어머니께서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었다”고 증언했다.

‘일본군 위안부’ 강제연행 사실을 탄핵하는 운동을 전개 중인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김병헌 대표는 “길 씨의 증언 내용은 길 씨가 매춘부였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”며 “강제연행 피해자가 아님에도 관련 법률상 생활보호지원대상자로 선정돼 국고 보조금을 부정하게 수령해 왔다”고 지적했다.

길 씨의 빈소는 인천 연수구 소재 인천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. 발인은 18일 오전 9시 30분으로 예정됐다.

박순종 객원기자



박순종 객원기자 pennjebo@pennmike.com